

[新東亞] 창간사

[新東亞] (1931년 11월호)

朝鮮民族은 바야흐로 大覺醒, 大團結, 大活動의 曉頭에 섰다. 事業的 大活動의 前驅는, 思想的 大 釀은 民族이 包含한 特色있는 모든 思想家 經綸家의 意見을 民族 大衆의 앞에 提示하여 活潑하게 批判하고 吸收케 함에 있다. 이러한 속에서 民族大衆이 共認하는 가장 有力한 民族的 經綸이 發生되는 것이니 月刊 [新東亞]의 使命은 正히 이것에 있는 것이다. [新東亞]는 朝鮮民族의 前途의 大經綸을 提示하는 展覽會요, 討論場이요, 釀所다. 그러므로 [新東亞]는 어느 一黨 一派의 宣傳機關이 아니다. 名實이 다같은 朝鮮의 公器다. (下略)